

2024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 1단계 쇼케이스 전문심사 총평

안산문화재단의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공연분야)은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1단계는 작품개발과 쇼케이스, 2단계는 신작 초연으로 구성되는 단계별 지원형식을 갖는 사업이다.

2024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1단계 쇼케이스 공연에는 극단 예지촌 '슬픔의 틈새', 아이어드림 '뮤지컬<블라인드 슬로프>', 프로덕션 연작 '폴라리스', 극단 동네풍경 '메타버스 힐링 솔루션 <Dream World>', 극단 4호선 '우리집 현관으로 들어간다' 등 총 다섯 팀이 참가하였다.

먼저 쇼케이스를 준비한 모든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들은 제한된 20분이라는 시간에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고자 했다. 쇼케이스를 통해 작품 주제의식의 구체화, 내용구성 완성도, 창작진 및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캐릭터에 대한 해석에서 참신함을 보여주는지, 연극적 표현들이 현실을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가, 또한 공연이 동시대 관객들과 어떻게 만나고자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 심사하였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아픈 과거를 통해 역사적인 사실 속에 녹아든 인간과 가정의 이야기, 가상현실과 AI 우주시대와 같은 미래적인 부분과 시공을 초월하는 공간 등 시대적 이슈 상황들에 대한 소재가 다채롭게 표현되어 지원 단체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몇몇 작품의 경우 계획서에서 보다 진전된 문제의식과 형식을 보여주는 반면, 몇몇 작품은 관습적 전개와 표현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의 현실성, 동시대성을 놓치고 있어 다소 아쉬웠다. 또한 지역성과 연계하여 안산만의 특색을 반영한 리서치가 필요하고, 나아가 콘텐츠가 구체화 되어 작품에 깊이와 공감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작품들이었다. 그 중 쇼케이스로서의 완성도, 탄탄한 스토리 구성, 쇼케이스를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신작초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단체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선정된 창작물이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4. 10. 19

심사위원 김소연, 박정호, 류승완